

월간 실적보고

2015.09

Summary of 2015 Sep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28.4%** 성장
 - 패키지 **14.1%** / 티켓 **57.8%** YOY 성장
 - 패키지 **11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 (인원 **8.7만명**)
 - 티켓 **14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 (인원 **5.8만명**)
2. 일본 **62.2%** / 남태평양 **22.7%** / 동남아 **17.1%** / 유럽 **5.2%**
 - 일본 YOY **54%** 이상 성장률 **13개월** 지속
 - 남태평양 YOY 성장률 **20%** 상회
 - 동남아 **11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
 - 유럽 YOY 성장률 **반등**

비수기의 시작 9월

9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28.4%, 송출인원 14.6만명. 하반기 비수기의 시작인 9월은 최근 4년간 평균 10% 대의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본격적인 기고가 시작된 시점인 올 9월의 성장은 MERS 등으로 이연된 여행수요가 물리는 4분기 성장에 대한 전망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패키지 성장률 14.1%, 송출인원 8.7만으로, **역대 9월 중 처음으로 8만명을 넘는** 고객을 송출했습니다.
티켓은 성장률 57.8%, 송출인원 5.8만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평균 성장률 50%를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지속되는 2자리수 성장률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5	87,397	58,837	146,234
2014	76,627	37,274	113,901
YOY	14.1%	57.8%	28.4%

총송객 YoY : 15년 7월 31.0% → 8월 37.2% → 9월 28.4%

패키지 YoY : 15년 7월 15.5% → 8월 20.4% → 9월 14.1%

티켓 YoY : 15년 7월 63.1% → 8월 74.3% → 9월 57.8%

일본 62.2% ↑ 남태평양 22.7% ↑ 동남아 17.1% ↑ 유럽 5.2% ↑

9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62.2%, 남태평양 22.7%, 동남아 17.1%**이며, 지역별 인원 비중은 **동남아 33.8%, 중국 28%, 일본 19.8%**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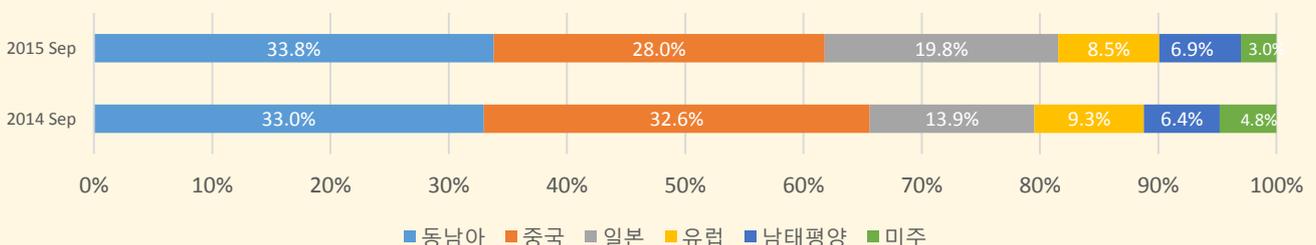
일본은 전년동월 대비 **62.2%** 성장, 작년 9월부터 계속된 50% 이상의 성장률 기록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소산 화산 폭발로 인한 수요 위축 염려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보여온 높은 성장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남태평양은 **22.7%** 성장하며, 지난달 한자리수로 떨어졌던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역성장을 한 시기가 많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17.1%** 성장하며, 작년 9월부터의 성장을 유지했고, 지역별 비중도 30%대를 이어나갔습니다.

유럽은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8월의 Flat 한 성장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예약 시점 상 6월 MER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8월과 9월에 다소 부진했지만, 정상화 되고 있는 여행수요에 발 맞추어 그간 보여준 성장 곡선을 다시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0월	11월	12월
2015년	95,277	49,470	19,672
2014년	79,345	37,068	11,519
증감률	20.1%	33.5%	70.7%
2014년 마감	98,323	84,913	90,481

* 2015.9.25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작년 4분기의 기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의 예약률은 준수한 상황입니다. MERS 등의 이슈로 인해, 취소, 연기된 여행수요가 일찍 4분기로 몰리면서, 빠르게 높아졌던 4분기 예약추세는 8월 말과 비교하면 조금 느려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올 6월 MERS 등으로 인해 예약 Lead Time이 짧아진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4분기가 진행되면서 예약률은 재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10월 말 강남 SETEC에서 열릴 '2015 모두투어 여행박람회'를 통해 얻게 될 모객과 홍보효과를 고려하면, 올 4분기 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의 성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